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2. 14.(수)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원전·재생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 활용한 탄소중립 추진”에 한마음 모아

-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회의 계기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 열려
- 최남호 2차관, 민간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제적 인증체계 제안
- 인증체계 마련 위한 글로벌 작업반 구성 등 협의 진행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EA 각료회의(2.13~14) 계기, 현지시간 2월 13일에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Carbon-Free Energy(CFE) Roundtable)를 개최하여,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이회성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 겸 CF연합 회장은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난 12월 COP28의 논의를 언급하고,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최 차관은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주요국들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CFE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민간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 인증체계인 CFE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제안을 환영하였다. 참여국들은 관련 논의를 위한 글로벌 작업반 구성 등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주요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민간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044-203-5122)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실 기후에너지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서기관	박근형 (044-203-4895)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임은성 (044-203-42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공동 보도자료 (영문)**

Joint Press Release
February 13, 2024

Carbon Free Energy Initiative Roundtable Meeting in the IEA Ministerial Meeting

Several countri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Canada, Japan, Kingdom of the Netherlands, Republic of Korea (ROK), United Kingdom, and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attended the Carbon Free Energy Initiative Roundtable Meeting in Paris on February 13, held on the sidelines of the IEA Ministerial Meeting, hosted by the ROK. **Namho CHOE**, Vic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OK and **Hoesung LEE**, President of Carbon Free Alliance led the roundtable meeting.

Recalling the decision made at the 28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COP28) to the UNFCCC to accelerate zero- and low-emission technologies, including renewables, nuclear, abatement and removal technologies such as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particularly in hard-to-abate sectors, and low-carbon hydrogen production, the participants shared their views on possible cooperation on carbon free energy to achieve a global goal of carbon neutrality.

The participants also recognized the Carbon Free Energy (CFE) Initiative which was proposed by the ROK on the margi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23. The Initiativ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utilizing various carbon free energy sources available, in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The participants also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active private sector engagement and underscored the imperative to drive demand-sid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ROK shared its idea of launching the CFE Initiative Global Working Group to establish a CFE Program which includes develop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criteria for carbon-free energy and establishing a global certification scheme. The ROK also proposed participants to actively consider joining the global working group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among like-minded countries. The participants welcomed ROK's engagement and looked forward to further discussion.